

깨달음의 길 찾는다

백양사에서 내달 21~25일 야단법석... 고우 스님 등 강연·토론

“수많은 삶, 윤회 속을 헤매이며/ 집짓는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여/ 계속해서 태어남은 괴로움이었네. 오, 집짓는 자여!/ 이제 그대를 보았으니/ 그대는 더 이상 집을 짓지 못하리라/ 서까래는 부서졌고 대들보는 뿔뿔이 흩어졌으며/ 마음은 열반에 이르러/ 갈래의 소멸을 성취하였노라.”(부처님의 오도슴)

이 계승에서 집은 몸을, 집짓는 자는 갈애(渴愛)를, 서까래는 모든 번뇌를, 대들보는 무명(無明)을 뜻한다. 무명을 밝혀 번뇌와 그로 인한 갈애가 본래 공함을 깨달아 열반에 이르는 것은 모든 구도자의 목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불교에서는 ‘깨달음’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다(言語道斷 心行處滅)’고 하는 깨달음의 경지는 언어와 문자로 표현이 불가 하기에 논의자체가 금기시되는 경향조차 있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법을 논하라. 아니면 침묵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진리와 깨달음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수행의 과정이다. 이런 가운데, 침묵과 회론(駁論)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을 찾는 진지한 야단법석이 열려 관심을 모은다.

고려 각진 국사를 비롯해 조선시대 소요, 태능, 편양, 진묵, 연담 스님과 조선말기의 백파, 학명, 만암, 응성, 인곡, 고암, 서옹 스님 등이 정진했던 호남불교의 근본도량 고불총림 백양사(주지 시몽, 이곳에서 11월 21일 정오부터 25일 오후 2시까지(4박5일) ‘깨달음의 길을 찾는다’ 주제로 법석이 펼쳐진다.

현대불교가 후원하는 이번 법회는 지난 8월 지리산 실상사에서 열려 불교계 안팎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정법불교를 모색하는 지리산 야단법석’에 이은 두 번째 법회이기도 하다.

21일 정오 고불총림 방장 수산 스님의 입재법어로 문을 여는 법회에서는 조계종 원로의원 고우 스님과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21일 오후 2~9시), 실상사 화엄학원 강사 각목 스님과 (사동사설 이사장 용타 스님(22일 오전 8시~오후 9시), 인드라마 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과 함양 벽송사 벽송선원장 월암 스님

(23일 오전 8시~오후 9시), 익산 사자암 주지 황봉 스님(24일 오후 2~9시)이 강사로 나서 ‘깨달음의 길’을 모색한다. 도법 스님은 25일 오전 8~11시, 한 번 더 강의를 진행한다.

고우 스님은 ‘실천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길’에 대해, 시몽 스님은 ‘대승경전을 통한 깨달음의 길’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다. 도법 스님은 생명평화운동을 통해, 용타 스님은 동사설을 통해, 월암 스님은 간화선 수행을 통해, 각목 스님은 초기경전을 통해, 황봉 스님은 조사어록을 통해 정각의 길을 찾는다.

백양사 주지 시몽 스님은 “무위진인(無位真人: 불성) 즉, 차별 없는 참사람운동을 펼친 서옹 큰스님의 유지를 이어 개살하는 이번 무차법회는 사부대중이 함께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귀한 시간기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간화선·간경·보현행·동사설 등 수행법에 관심이 있는 사부대중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동참비는 출가자 10만원, 재가자 20만원이다. 선착순 200명. (061)392-7502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총무원장 자승 스님 당선

290표 득표로 ‘역대최다’... “종단 발전 매진” 각오 밝혀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에 자승 스님이 역대 최다 득표, 최다득표율, 최다득표차로 당선됐다.

10월 22일 열린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서 기호 1번 자승 스님은 전체 선거인 320명 중 90.62%인 290표를 득표해 당선됐다. 투표에는 317명이 참여(투표율 99.06%)했으며, 기권 6, 무효 14표가 나왔다. 기호 2번인 각명 스님은 3표, 3번 대우 스님은 4표를 획득했다. 중앙선관위는 곧바로 자승 스님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자승 스님은 당선증 교부 직후 “제33대 총무원장으로 뽑아준 24개 교구 320명 선거인단에 깊은 감사 드린다”며 “무한한 책임감으로 종단 중흥 발전에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당선확정 직후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당선을 고불(告佛)하고 제32대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당선 인사를 올렸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고생 각오 하고 잘 해달라”고 당선 축하 인사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으로부터 축하인사를 받는 제33대 총무원장 당선자 자승 스님. 사진=박재원 기자

를 건넸다. 지관 스님은 함께 배석한 자승 스님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그 동안 후임원장 추대 및 선출까지 고생이 많았다.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달라”며 “부처님 법에는 주와 반이 있는데 법문인 주와 들러리인 반이 모두 하나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자승 스님은 “32대 속원 사업을 이어받아 잘 정리하겠다”며 “내일 원로회의에 방문해 인사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선 인사에 이어 4층 대회의장에

서 당선자 기자회견이 열렸다.

자승 스님은 “종정 스님과 원로 대덕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들어 종단 발전에 매진하고, 신심과 공심으로 사부대중의 뜻을 모아 불교 중흥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자승 스님은 제33대 총무원장 선거에 대해 “관행화된 종단 선거 문화를 혁신하고, 청정 종단의 위상

에 맞는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냈다”고 자평하며 “어법한 선거에 동참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종도들의 압도적 지지로 선거가 차분하고 조율되 치러졌다. 인수위 사무실 마련 등 당선자 취임까지 종단 공식 일정으로 업무 인계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승 스님 취임식은 11월 5일 11시 조계사에서 봉행된다.

관련기사 2면 노덕현 기자

법구경
백 년을 무의미하게 살기보다
단 하루만이라도
명상과 지혜의 빛 속에 살아가.

현대불교 @자리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한림 031)792-6288
현릉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출판
운 주 사

불경금액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복장 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형 주문 제작이 가능합니다.
원도: 상량식, 복사, 복장 의식, 영가전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얼레과일 두리야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할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점 배송

사 고

영봉(해중) 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Pikey봉. 해발 4080m를 걸어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네팔 카트만두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공동 기획한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봉(해중) 스님이 안내하는 이번 트레킹은 삶에 지치고 번뇌에 휩싸인 영혼에 부처님 정각의 대도량 히말라야의 기운을 불러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참안내

- 일 시 : 11월 6일(금)~ 20일(금) 15일
- 코 스 : 인천공항-카트만두-지리-시발리아-빈달-마일리-불볼레-Pikey 베이스캠프-Pikey 정상-준베시-빈달-시발리아-지리-카트만두-인천공항
- 인 원 : 선착순 30명(16세 이상 가능)
- 참 가 비 : 287만원(비자비 5만원 별도)
- 입 금 계 좌 : 국민은행 006-01-0785-361(현대불교)
- 접 수 마 감 : 10월 30일(금)
- 사 전 설 명 회 : 10월 31일(토) 오후 3시 현대불교신문사
- 문 의 : 02-2004-8233, 017-236-5769 임연대 부국장 033-647-8848 영봉스님

공동주최

현대불교신문사 ·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

영봉(해중) 스님은

1990년 부처님 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매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안나푸르나, 킬리만자로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국민과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종단을 만들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삼보(歸命三寶) 하옵니다. 존경하는 종정어하와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원로대덕 큰스님 이하 제33대 총무원장 선거가 여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 모든 사부대중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소남은 이번 선거를 통해 ‘종단의 변화와 합리적인 개혁’을 기대하는 종도들의 뜻과 의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관행화된 종단 선거 문화를 혁신하고, 청정 종단의 위상에 맞는 ‘깨끗하고 모범적인 선거’를 치러냄으로써 종단과 나아가 사회적으로 커다란 귀감을 남겼습니다. 저에게 문중과 교구를 떠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은 ‘안정과 화합’이라는 도대를 구축한 제32대 총무원을 계승하여 한국불교의 ‘도약과 중흥’이라는 결실을 맺으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삼을 것입니다. 한모금의 물을 마실 때에도 그 근원을 생각하라는 읍수사원(飲水思源)의 고사를 거울삼아 임기 내내 저에게 맡겨주신 큰 책무의 근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이어온 우리 조계종은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과 가치관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제 소남은 한국불교와 나아가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종교지도자로서 종도들의 뜻과 의지를 겸허히 수렴하여 수행 중흥을 진작하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동체대비(同體大悲)·자리아타(自利利他)의 부처님 정신을 적극 실천하여 고통 받고 소외된 우리 이웃과 사회를 향해 따뜻한 자비의 발걸음을 적극 내딛고 이를 통해 국민과 세계인의 존경과 신뢰를 이끌어내도록 하는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외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 4년 동안 종단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주신 총무원장 지관 큰스님 이하 총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총무원장의 공백과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경쟁과 관심을 아끼없이 배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3년 10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당선자 자승 합장

